

광주소녀원

○ 매체 : 전남인터넷신문(2026. 1. 26.)

○ 제목 : 광주소녀원, 원내 대학 합격자들의 새출발 응원

광주소녀원, 원내 대학 합격자들의 새출발 응원

- 직업훈련 소녀원에서 14명 최다 합격 쾌거 거뒀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녀원은 1월 26일 2026년 대학 입시에 합격한 14명 중 실제 대학에 등록한 1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소녀원은 직업훈련 전문 소녀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특별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14명 모두 광주소녀원 검정고시 특별반을 통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로, 검정고시와 대학 입시에 성공적으로 도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된 A군의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A군은 소녀원에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 수시원서 접수까지 마친 후 지난 해 11월 출원했다. 출원 후 불량교우를 단절하기 위해 생활근거지를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소녀원 교사 B씨의 집 근처로 이전하였고,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대학에 합격한 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A군이 출원한 이후에도 친형처럼 계속해서 A군을 지도 해오던 교사 B씨가 A군의 상황을 소녀원에 알렸고, 소녀원에서는 재원생뿐만 아니라 A군처럼 출원 후 성실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 3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수여식이 끝난 후 "소녀원까지 가게 된 부족한 절 챙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선생님들을 보며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직업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 응급구조사를 꿈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 가까워진 것 같다. 대학을 다니면서 성실하지 못했던 저의 학창 시절을 만회하고 싶다."라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승원 원장은 "열심히 살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많다는 걸 학생들에게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대학은 개인역량을 꾸준히 계발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각자의 노력에 따라 기회가 계속 확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미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광주소녀원은 직업훈련 소녀원이지만 상급학교 진학 의지가 있는 학생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등 재원 중 진학 및 취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소녀원생들이 출원한 후에도 유선, 방문지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